

광주 방문 이명박 대통령 최측근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

“광주 올림픽 유치 나서야”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한나라당 정두언 의원이 5일 “광주가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올림픽 유치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날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 참석, 본보 기자와 인터뷰를 갖고 광주 올림픽 유치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고려했던 사안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5일 김태욱 한나라당 광주 동구 예비후보 선거사무실에서 광주발전과 4·9총선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고경석기자 ksgo@kwangju.co.kr

“한나라 비례대표 선출에
호남 충분히 배려 될 것”

정 의원은 “부산이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는데 광주가 올림픽을 유치하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광주 올림픽 유치를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합니다. 2016년 대회 유치를 목표로 잡는 게 좋을 듯 합니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새정부의 영남권중 인사와 관련, “주요 인사에서 호남인물을 다수 발탁하지 않아 지역 민심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관급 인사에서 보듯이 새 정부는 호남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한나라당 국회의원의 비례대표 선출 과정서는 호남이 상당히 배려될 것입니다. 당내 분위기도 호남을 고려하는 쪽

서 태어난 뒤 불운한 가정 형편 탓에 외삼촌의 양자가 돼 광주 서석동에서 5년 동안 지냈다. 그의 큰아버지는 광주에서 6선 의원을 지낸 정성태(작고) 전 국회부 의장이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호남 출신임을 속이고 정부 고위직에 오른 인사들이 많았습니다. 실제 실명을 거론할 수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당하게 호남 출신이라고 자랑하며 살아온 사람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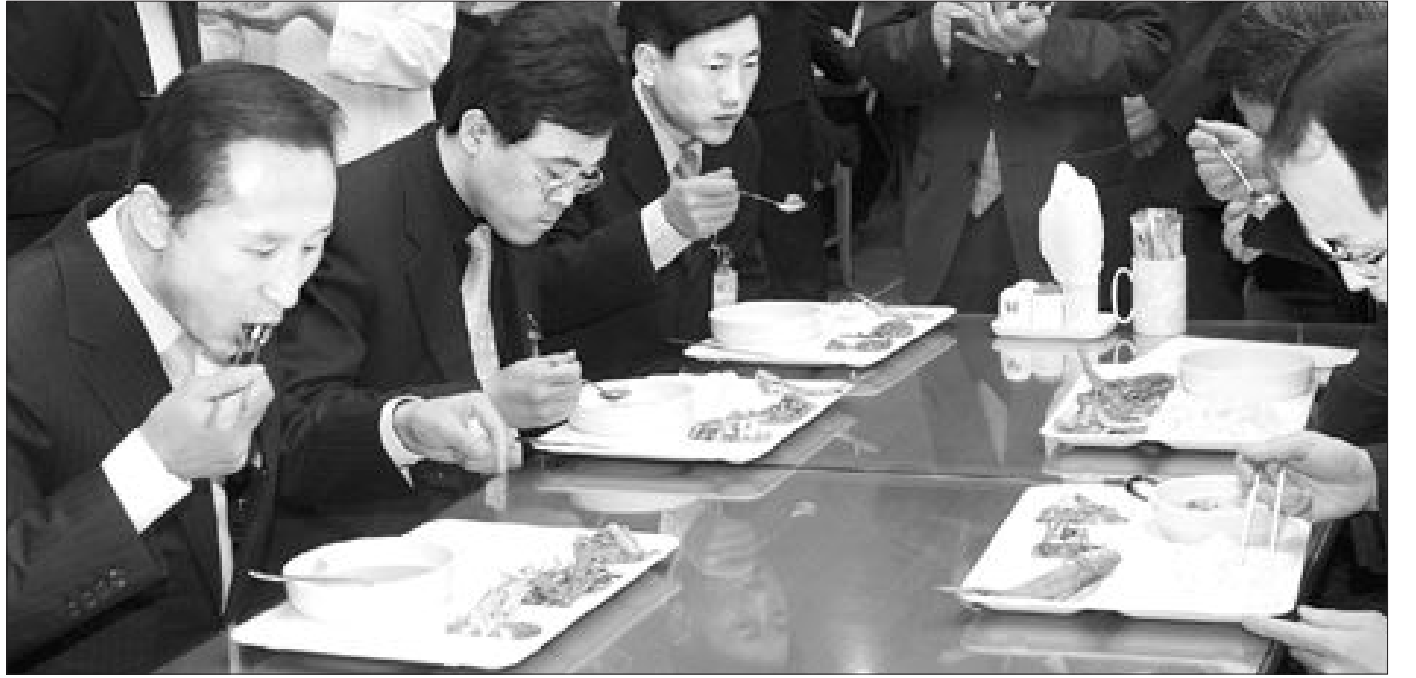
“호남 자부심 잊은적 없어
총선 정동영과 대결 희망”

다. 제가 호남사람이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는 이번 총선과 관련 “지난 1월 내 지역구(서울 서대문)에서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과 결전을 치르고 싶다고 제안한 것은 아직도 유효하다”며 “정 전 의장이 자신의 거주지인 서대문을 지역에서 꾸준히 기반을 닦은 만큼, 대결을 기피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이날 김태욱 한나라당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축사를 통해 “광주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 전문가인 김태욱 한나라당 예비후보 같은 인물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역민들이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이명박 대통령이 5일 청와대 대통령실 직원들이 근무하는 여민관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한 후 구내식당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기업인 24시간 ‘핫라인’ 연다

‘비즈니스 프렌들리’ 실천...휴대전화 번호 기업인에 통보

이명박 대통령과 기업인들 사이에 직접 전화통화가 가능한 ‘핫라인(Hot-line)’이 개설된다.

이는 그동안 이 대통령이 강조해 온 ‘비즈니스 프렌들리(Business-friendly, 기업 친화적)’ 원칙을 실천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5일 “이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인과 직접 대화가 가능하도록 ‘통로’를 개설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지금도 비서관 등 내부 보고라인 참모들과 24시간 통화를 하는데 기업인들과도 24시간 통화 가능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기업인 핫라인’은 당초 청와

대 집무실에 별도의 유선전화를 마련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퇴근 후에도 전화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지시에 따라 휴대전화로 결정됐다. ‘핫라인’용 휴대전화는 당선인 시절부터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청와대에서 새롭게 지급 받은 휴대전화를 사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핫라인 번호는 기업인들에게 개별적으로 혹은 재계 단체 등을 통해 비공개로 통보될 것으로 전해졌으며 참모 및 지인들에게도 일부 알려준다는 계획이나 가급적 ‘기업인 전용’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이 대통령은 평소에는 수행비서에게 핫라인 휴대전화를 맡겨 전화를 연결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시간 뒤에는 직접 관저로 가져가 잠자리에 들 때도 머리맡에 둘 계획이라고 한 청와대 참모는 전했다.

이 대통령의 ‘기업인 핫라인’ 개설은 이미 지난 대선기간에 약속한 ‘공약’ 가운데 하나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경기도 시흥 한 국산업기술대에서 열린 상공인 초청 조찬강연에서 “최근 해외출장길에 두바이 통치자인 셰이크 모하메드가 휴대전화로 실무자의 보고를 받는 것을 보고 놀랐다”면서 “기업인이 대통령에게 직접 휴대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나는 국가의 CEO(최고경영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기업인이 직접 대통령에게 전화할 수 있어야 한다”며 기업인과의 소통을 중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 대통령 “물가 모니터링 민간 참여 필요”

이명박 대통령은 5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물가)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대책과 관련, “지난번 국무회의 때 보니까 과거 전통적 방식으로 물가 문제에 대처하는 데 구체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또 “부처별 업무보고가 너무 빈번한 얘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살아 있는 보고가 되도록 해달라”면서 “4월5일 식목일에 맞춰 북한과 연락해 묘목을 보내는 등 북한의 나무심기 운동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토록 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오는 2013년 교도 의정서가 발효되는 상황에 대비해 이산환

소 배출량 감소대책과 연계해 추진하라는 것”이라며 “이는 대선 공약으로 나중에 북한으로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배출 허용권)을 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연간 300억 달러에 달하는 대일 무역수지 적자를 극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번 일본 방문을 계기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쌀 연간 보관료가 6천억원이 나 되는데 이런 보관 비용을 감안하면 묵은 쌀값을 낮춰 기회 비용의 개념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쌀값이 비싸다는 설명이 있는데 적극적 사고를 갖고 대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당정청 협의채널 3~4개 가동

청와대와 한나라당은 새 정부 초기의 원만한 국정운영을 위해 당정청 협의채널을 3~4개 가동기로 한 것으로 5일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당정청간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협의채널을 본격 가동기로 했다”면서 “조만간 안을 확정짓 뒤 곧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일단 ▲대통령과 당 대표간 정례 회동 ▲총리-원내대표-대통령실장-정무수석 협의라인 ▲정책위의장단-장관 협의체 등 3개 라인을 기본으로 필요시 분야별 협의채널을 가동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과 당 대표간 정례회동은 인사 문제를 포함한 주요 국정현안에 대해 정부적 의견을 교환하고 큰 틀의 해법을 마련하는 자리라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최시중 방통위원장 재산 78억 신고

김하중 통일, 이만의 환경 내정자 등 재산·병역 공개

김하중 통일, 이만의 환경부 장관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가 4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하고 재산신고 내역과 병역사항 일체를 공개했다.

▷재산=김하중 내정자는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빌라(7억5천200만원 상당)와 경남 마산시 신포동 상가(4억6천만원) 등 본인 재산 12억5천600만원과 배우자 재산 1억100만원 등 모두 13억5천750만원을 신고했다.

이만의 내정자는 서울시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6억4천400만원)와 담양군

무정면 토지 등 본인재산 8억5천만원과 은행 예금 7억7천800만원 등 배우자 재산 8억원을 합쳐 모두 18억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최시중 내정자의 재산은 본인 재산 62억2천만원, 배우자 재산 11억6천190만원, 아들 재산 4억4천300만원 등을 모두 합쳐 78억6천86만원이었다. 최 내정자 본인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은행예금·신한은행에 위탁한 20억7천800만원을 비롯해 외환은행 예금 4억500만원, 푸른상호저축은행

예금 7억3천300만원, 미래에셋증권 예금 8천300만원 등 모두 33억원에 달했다.

▷병역=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하중 내정자는 1969년부터 1971년까지 육군 중위로 복무한 뒤 만기 전역했다.

이만의 내정자는 1966년 이후 대학 재학 이유로 징병검사를 연기하고 다시 질병과 생계곤란 등을 이유로 입영을 거듭 연기하다 1971년 보충역에 편입된 뒤 1974년 소집면제됐다.

최시중 내정자는 1958년 7월3일 입영해 1960년 8월5일까지 육군 일병으로 복무한 뒤 ‘귀류’ 조치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연합뉴스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서울 2361-8111 / 광주 236-8111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시료출산 전국 수석 2명 배출(전국 1위) / 경쟁매매 30% / 최우선 권역 시범에서 출산 / 과외/특강 / 24시간 상담 / 무료입학 / 100% 합격

제정 3월 3일 / **합격** / **국비무료**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서울 2361-8111 / 광주 236-8111

공인중개사 수강료 전액무료

합격을 전국 1위의 유명강사진이 합격을 예약합니다!!

전남고시학원 236-2467~8
 (전남여고 건너편)

마술 (Magic) 무료 수강생 모집

마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마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마술을 배우고 싶으신가요?

수료생 모집 (7/11일)

- 마술의 기초 이론부터 실용 마술까지
- 합격 후 1주일 동안 1:1 개인 지도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수료생 모집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 마술의 기초 이론, 실용 마술, 마술의 역사

매직&매직 아카데미 ☎(062)434-7857